

책임을 질 줄 알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배출을 바라며



손길승
SK그룹 회장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환경과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왔기 때문에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하여 반세기만에 경제 규모에 있어 세계 10위에 랭크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창립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소수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회원 대학이 194개가 될 정도로 커다랗게 자랐고 또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의 와중에도 저희 기업인들은 커다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학교육에 대해서 곳곳에서 칭찬하는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나무람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학문의 위기가 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인문과학 부문의 위기가 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오늘날의 무한경쟁시대에 산업체 일선에서 싸워 줄 인재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경제계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대학은, 대학마다 특성을 가진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모두가 한 가지 방향으로,
또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 나간다면
세계화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또한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들이 아주 심각한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20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리인데 저를 초청한 이유가 단순히 스폰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대학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뜻으로 알고 좀 듣기 거부한 말씀이지만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책임 지는 사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세계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진 사회 지도자의 양성과 인재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사회가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성이 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회 지도자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마다 특성을 가진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모두가 한 가지 방향으로, 또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 나간다면 세계화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특성 있고 개성 있는 대학을 만들어 가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도쿄대학이 어떻게 변신하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은 대학마다 특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차별화된 대학인 상을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지도자와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자기 특성에 맞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인재상을 만들어 주는 대학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대학을 우리 청소년들의 투비모델(To be Model)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책임을 질 줄 알고 실력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회 지도자와 인재들이 사회에 배출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성숙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선진국으로 반드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출한 인재들은 세계 어느 누구와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기업들도 당당하게 세계와 경쟁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2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역할을 꼭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알차게 이 협의회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협의회 20주년을 축하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손길승 회장(SK그룹)이 건배 제의를 했다.